



모바일계의 징기스칸을 꿈꾸다  
오니텔 **김경선** 대표

## 중국정복의 꿈을 향해 말 달린다

김대표의 집무실에 들어서니 커다란 세계지도가 한 눈에 펼쳐진다. 그리고 중국대륙 위로 빨간표식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벨소리, 통화연결음, 게임, 음악 등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28개 성 중 17개 성에 유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성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중국대륙을 점령해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옵니텔은 몽고, 일본, 동남아 등에서 한국의 우수한 모바일 기술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진출에 있어서는 신중했다. 중국을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친 기업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진출을 준비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중국진출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고작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의 철저한 중국진출 전략에 올해 7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표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의 뒤안길엔 한 여인이 동행하고 있었다. “자오즈민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다”며 “한·중 핑퐁커플로 유명한 왕년의 탁구스타 자오즈민을 영입한 것이 성공비결”이라고 말한다.

## 금은보화를 쥐도 안 바꿀 파트너를 만나다

자오즈민과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협력자를 구하던 김경선 대표는 중국무역을 하던 선배로부터 자오즈민을 소개받는다. 그 후 2년을 만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업파트너로 손을 잡게 되었다.

“자오즈민의 사업수단과 중국에서의 인지도가 옵니텔의 뛰어난 모바일 기술과 만나 생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휴대폰 사용자는 현재 2억3000만명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7배가 넘는 시장이지만, 중국 전체인구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김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되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사업 등 더 많은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바일 세상의 혁명, DMB사업의 선두주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년 365일이 부족하다. 김경선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옵니텔 대표를 비롯해 중국 현지법인 설립, 한국벤처기업협회 임원, 한국 콘텐츠산업연합 부회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또 최근에 ‘한국DMB주식회사’를 설립했으니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DMB는 모바일방송을 말한다. 현재는 위성DMB가 상형화되고 있기는 하나 고가의 유료서비스이기에 일반 유저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표가 준비하는 것은 지상파DMB다. 지상에 20개 정도의 기지국을 설치해 놓으면 전국 어디서나 DMB휴대폰을 통해 고품질의 모바일 방송을 무료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김대표는 지상파 DMB로 방송을 보고 CDMA를 이용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유료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지상파 DMB유저는 방송과 연동된 쇼핑이나 퀴즈에 참여하는 등 쌍방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가서비스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DMB서비스가 한국에서 상형화되어 기술이 검증되면 중국에서도 DMB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김대표의 욕심이다.

## 목표는 함께 잘사는 문화를 만드는 것

김경선 대표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다. 눈은 반달 모양이고 입술 꼬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경영철학 또한 미소를 짓게 만든다.

“더불어 잘사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경영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지분을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직원이 15명이었을 때 처음으로 맞은 직원의 결혼식에서 모한 생각이 들었다. 김대표를 믿고 있는 직원과 그 직원을 믿고 결혼하는 아내를 보며, 두 사람이 잘살기 위해서 회사가 더 많이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직원이 150여 명으로 늘어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직원들과 나누어 함께 잘살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미소가 아름다운 김경선 대표는 최근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모바일 기술의 우수

성을 중국에 알렸다. 또한 지상파 DMB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 모바일 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있다. 하루 24시간이 짧고 일년 365일이 부족하지만 모바일과 사랑에 빠져 지칠 줄

모른다. 모바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